

# KEPCO E&C Family

2020 03+04

## 사람을 향한 기술! 행복한 에너지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 2020 03+04 KEPCO E&C Family



통권 457호 2020년 3,4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emolee7@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봄 - 율동주 -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 04 명사칼럼

2020년 봄을 맞는 한국과 일본

## 06 Focus News

UAE원전 신속대응팀 운영  
 일진파워와 사업개발 양해각서 체결  
 중소기업 동반 ITER 기자재 공급 사업 수주  
 원전 디지털변환 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개최  
 2020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 전시회 참가  
 협력사 윤리-인권헌장 제작지원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최종보고회 열려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원자력본부 기술전수회 및 멘토링 실시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회적 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특강 실시  
 김천혁신도시 울곡고 졸업생 격려 동참  
 설맞이 지역농가 어울림 직거래장터 열어

## 10 세계 도시 탐방

UAE 아부다비(UAE-Abu Dhabi) 소개

## 12 팀소개

UAE 아부다비(UAE-Abu Dhabi) 지사



## 14 Project of KEPCO E&C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 16 자랑스런 한기인

양복연 차장 인터뷰

## 18 맛집 탐방

수이당 : 남도 한정식의 진미

## 20 사내벤처

사내벤처 1호 탄생

## 22 직원 참여 마당

회사가 보이는 김천혁신도시

## 23 이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24 가족탐방

서광희 차장 & 한국화 차장 가족

## 26 포토에세이

봄바람에 실려온 고고한 선비들의 풍류 - 가사문학지

## 30 밴드공연

A2F 록 밴드 첫 공연 데뷔



## 32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전통민속주 - 안동소주

## 34 Shall We Meet?

의무실 박명주, 조주영 천사표 간호사

## 36 나의 취미

무에타이는 소중한 나의 취미 활동

## 38 동호회 탐방

한마음 코러스 합창단 : 노래로 만난 사람들

## 40 Power Engineering School

PES Winter Camp 참가 후기

## 42 협력회사 소개

원우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최우수상 선정 업체

## 44 Culture

교양 『대구 방문판매 여성』의

## 46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동우회 동정

## 47 사보기획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봄은 언제나처럼 새롭다

# 2020년 봄을 맞는 한국과 일본



연록색으로 움트는 새싹이 그러하고 대지 위로 지퍼 오르는  
아지랑이가 그러하다. 다투어 꽃이 피고 뱀나비가 날아 들  
면, 공포의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도 시나브로 주저 앉고 더  
불어 사재기 하던 한국산 마스크 파동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자리를 잡을 터다. 그러나 우리가 것처럼 봄을 기다  
렸던 것은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벗어 나기를 손꼽아 기대했  
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리막으로 떨어지던 경제지표가 봄과  
더불어 급부상하려는 움직임이 연록색 새싹처럼 움트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반토막 났던 반도체가 제 자리를 찾고, 수소차, 전기차 등 자  
동차 시장에도 새바람이 불었으며, 문화 산업의 꽃, 영화 '기  
생충'이 92회 아카데미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코로  
나 바이러스 창궐 때 보여준 한국의 인류애 정신에 보은이라  
도 하듯 도시마다, 거리마다 중국 관광객으로 가득가득 차  
있고... 그러나 1년 전 그 때만 해도 우리는 참으로 암담하고  
심란한 여름을 맞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즈음 마트에 가면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 맥주 '아사히'  
였다. 온통 '아사히'판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았기 때문  
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체 판매대의 절반을 '아사히' 한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진열 방식  
이 아닌가 싶었다.

세계적인 명품 상표가 수 백종인 것은 말 할것도 없고, 대한  
민국 토종만 해도 '하이트', '카스', '오비' 등은 얼마나 우리들  
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전통적인 브랜드들인가. 그럼에도 불  
구하고 텃세는 커녕 자기 앞마당에서조차 한쪽 구석 자리  
를 부끄러운 듯 간신히 자리매김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역시  
기왕지사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지 마음 먹었는데도, 막상 집  
어 드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아사히'다. 맥주 좋아하  
는 애주가 친구 왈, '칼칼하면서 드라이한 맛이 살아있고, 과

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부드러움이 목 넘김을 자극한다.'고  
했었다.

그처럼 대한민국의 애주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아사히  
가 2019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이 느닷없이 칼을 빼어 휘둘렀기 때문이다. 반  
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 자국의 안보  
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안정보장 우호국'인 백색국가에서 제  
외 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최  
강경 보복 조치인 셈이다.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2위 회사인  
삼성과 엘지가 생산 공정에 꼭 필요한 화학제품인 포호레지  
스트를 일본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사가지 못  
하게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제품으로 떼돈을 벌어 들  
이는 사실이 눈꼴시러워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므로 에  
라 빌어먹을! 찬물을 획, 끼얹는 격이었다. 우리 정부도 못  
먹는 감 쭈서나 보자는 일본의 심술에 항의하여 대 정부 성  
명을 발표했지만 기실 정부의 반응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구  
체적이고 더 뜨거웠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였다. '독립운  
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 별떼처럼 일어난 것이다.  
우선 그토록 선호하던 '아사히'부터 멀리하기 시작했다. 아무  
리 그동안 길들여졌고, 목넘김이 부드럽고 칼칼해도 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절제하겠다는 강력한 애국심이  
발동한 것이다. 어디 '아사히'뿐인가. 저가 의류 품목인 '유니  
클로도 그러하고, 한때 외제차 수입 순위 상위에 오르기 시  
작한 일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어느날 갑자기 고  
장난 전철이 끼익 멈춰서듯, 일본 제품 판매가 한 순간에 정  
지되고 만 것이다. 그래도 일본은 눈 한번 깜짝이지 않았다.  
긴장은커녕 냉소를 흘리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냄비근성의



## 백시종

- 現 김동리기념사업회 회장
-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역임
- 한국소설문학상, 오영수문학상, 류주현문학상, 채만식문학상 등 수상
- 1967년 동아일보,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데뷔

국민성으로 보아 길어야 한 달이고 짧으면 열흘도 안되어 흐  
지부지 될 것이라고 오히려 비아냥 거렸다. 한테 그게 아니었  
다. 보란듯이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을 지나, 해를 넘기  
면서까지 '일본 뛰어넘기'를 진지하게 실천한 것이다. 남녀노  
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러했다. 일본 온천 여  
행을 계획했다거나 예약해 놓은 관광객들도 별반 다르지 않  
았다. 하나같이 예약 취소였다. 줄 사태였다. 오죽하면 항공  
회사 비행기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겠는가.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  
외시키고, 반도체 생산의 필수 부품인 몇 가지 제품을 사가  
지 못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과, 국제적  
인 신용추락을 겪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웬걸 그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혼란은커녕, 불가능할 것 같았던 '탈 일본'  
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어찌는 수 없이 일  
본에 묶여 질질 끌려가던 그 동앗줄을 과감히 끊어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 되레 일본을 뛰어 넘어 우리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언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완제품을 만들어 일  
본을 제끼고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적이 있었는가. 히로시마  
원폭으로 패망한 일본이 온 좋게 한국전쟁이란 어부지리를  
얻어 또 한 차례 세계최강의 경제 부국으로 올라선 뒤로 우  
리는 늘 상 일본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주워 먹기에 급급하  
지 않았던가.

그랬던 우리가 언감생심 언제 부터인가 일본을 경쟁 상대로  
삼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는 늘 일본이었으므로, 우리는 3등  
4등을 상대하기 보다 오로지 일본만을 겨냥하여 앞질러 버  
리면 저절로 세계1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부동산의 세계 1위  
휴대폰 시장이나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같은 산업이 그러하

다. 어디 그 뿐인가. 세기의 재앙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만  
해도 일본의 원전 기술 수준은 과히 세계 최상급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로 원전 공사가 새로 발주되면 기술  
의 상징이라도 되는 듯이 일본이 거론되고 실제로 인본의 기  
술진이 설계자가 되거나, 감리자가 되어 세기의 원전 기술을  
만방에 자랑해 마지않았다.

한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2011년 이후의 일본은 그  
게 아니었다. 방사능 누출사고에 의한 요오드조차 처리하지  
못해 좌충우돌 하는 일본을 보며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  
다. 적어도 원전 기술에 대한 일본의 영광은 그것으로 내리  
막이었고 끝장이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게 눈칫밥 먹으며 구구단부터 배웠던 손기술  
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형 3세대 핵발전소 '에  
이피어르'를 창조해 내게 된 것이다. 그 고도의 기술을 공인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를 순수  
우리만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었겠는가.

대망의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는 유별나다. 풍요의 봄을  
약속 받았기 보다 실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아니 일본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제압하는 신기  
원의 해가 되기 때문이다.

생김새는 동양인이지만, 실은 유럽 백인혈통에 가깝다는 일  
본의 억지 우월주의는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무조  
건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일본.

오랫동안 종노릇하던 대한민국의 바야흐로 자랑스러운 주인  
신분으로 바뀌는 찰라가 바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몰아  
내고 밀려드는 2020년의 찬란한 봄이 아닌가 싶다.

※ 본 원고는 한국전력기술의 의견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KEPCO E&C News

## UAE원전 신속대응팀 운영

우리회사는 UAE 원전 1호기 연료장전일까지 ‘UAE원전 신속 대응팀’을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UAE 현장과의 지리적 차이와 업무 시차를 극복하고 기술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안발생시 1차적으로 바라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2차로 본사팀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 2단계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초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해외원전시장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UAE원전 신속대응팀 운영

## 일진파워와 사업개발 양해각서 체결

우리회사는 2월 12일 일진파워와 ITER 가압기 설계 및 제작 납품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진파워는 발전소 경상정비와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기기제작 업체로 ITER 국제기구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코드 기반 제작 경험과 품질보증 관련 자격 등을 갖추었다. 회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ITER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성공적 완수와 핵융합로 건설기술 확보, 추가적인 ITER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동반 ITER 기자재 공급 사업 수주

## 중소기업 동반 ITER 기자재 공급 사업 수주

우리회사는 프랑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기구가 발주한 약 20억원 규모의 배관 지지대 설계 공급 사업을 국내 중소기업인 성화산업(사장 노준형)과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회사가 운영하는 [ITER 수출지원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라 수주하게 되었다. 성화산업은 그동안 국내 원전건설 과정을 통해 제작기술을 축적해온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배관 지지대의 설계와 제작, 공급을 수행하게 된다.

## 원전 디지털변환 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우리회사는 2월 13일 ‘원전 디지털변환 기술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덕호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안전강화 예비타당성 총괄기획위원장 및 한수원, KINS, 한전KPS, 한전NF, 한원연 등의 외부전문가 20명과 내부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디지털변환 기술개발 내용을 다부처(산업부·과기부·원안위) 원전 안전강화 예비타당성 심사에 포함하는 방향을 논의 하였고, 다양한 제안과 토론이 오고 갔다. 회



원전 디지털변환 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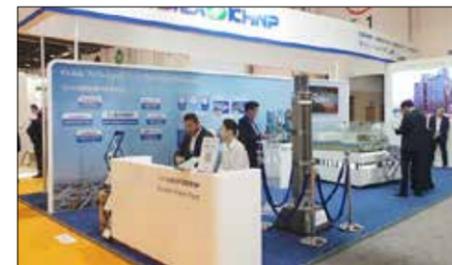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개최

사는 4차산업 기술도입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할 방침이다.

##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개최

‘2020년 제1차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가 1월 9일 우리 회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리 회사의 문일환 박사가 극한재해 대응기술 중 극한재해 사례 및 인위적 재해 대응 기술 적용 분야와 기술, 자연재해 대응 기술 적용 분야와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한전KPS의 플랜트서비스센터 역할 및 제언과 각 그룹사 감사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상호소통과 벤치마킹을 통해 회사의 현안사항 공유 및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감사 우수사례를 교류하고 감사 전문성 향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2020 세계미래에너지 정상회의 전시회 참가

## 2020 세계미래에너지 정상회의 전시회 참가

우리회사는 원전 설계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여 해외 시장개척 기반을 확보하고자 13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WFES)’ 전시회에 참가했다. WFES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청정 에너지 기업인 미래에너지공사(마스다르)가 주관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에너지 종합 포럼 전시회로 세계 40여개국 8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70여개국 약 33,000 명이 전시관을 관람하게 된다. 한전기술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협조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NF, 한전KPS,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7개사와 함께 한국원자력관 주관팀으로 공동 참여했다.

## 협력사 윤리·인권현장 제작지원

1월 10일 협력사인 (주)삼의공영에서 우리회사는 지원한 윤리·인권현장 현판식이 열렸다. 우리회사는 정부의 청렴윤리 및 인권중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협력사의 지속발전이 우리회사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과 청렴윤리 및 인권경영이 협력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기준이라는 점에서 협력사에 [윤리·인권현장]을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서 윤리·인권현장(안)을 작성해오면 현판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윤리·인권활동에 실질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최종보고회 열려

# KEPCO E&C News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최종보고회 열려

임직원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케어 서비스인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최종 보고회가 실무진 중심으로 10일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회사 EAP 프로그램은 2019년 2월 첫 도입되어 1년간 직원들이 삶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회사는 지난 1차년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직원들이 EAP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최종보고회 열려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리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공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여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회사는 2014년 부패방지시책 평가대상 기관에 편입 후 지속적인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원자력본부 기술전수회 및 멘토링 실시

## 원자력본부 기술전수회 및 멘토링 실시

우리회사 원자력본부는 1월 14일 원자력본부 내 2018년 입사한 직원과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전수회 및 멘토링 발대식을 실시하였다. 발대식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 기술실장, 멘토 및 멘티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멘토링은 원자력본부 내 신입사원과 기술전문인력간의 1대3 이내의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연20시간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전수회와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의 기술력 향상과 직원간의 상호 존중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향후에도 여러 가지 핵심기술 전수 프로그램 시행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은 1월 14일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0년도 원자로설계개발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사업계획 점검 및 청렴 실천을 통한 윤리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대회에서는 참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회적 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특강 실시

석자들의 청렴윤리 실천 선서를 통하여 청렴을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청렴윤리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각 부서별 사업개발 및 매출 계획의 점검 후 참석자 모두가 2020년도 경영목표 달성 구호를 힘차게 외침으로 각자의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 사회적 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특강 실시

우리회사는 1월 14일 국제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신년맞이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인요한(John A. Linton) 박사를 초청해 "선진국으로 가는길 - 우리가 잃어버린 1%"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이를 흥미있게 설명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봉사를 위해 북한을 29번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김천혁신도시 울곡고 졸업생 격려 동참

우리회사는 2월 6일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울곡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모범 졸업생 7명에게 상장 표창과 함께 장학금 각 50만원씩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수여된 포상과 장학금은 우리회사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업계획에 따른 미래인재 양성과 살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김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우리회사는 지역 내 학생들의 회사견학 프로그램,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확대 시행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김천혁신도시 울곡고 졸업생 격려 동참

## 설맞이 지역농가 어울림 직거래장터 열어

우리회사는 1월 23일 김천 본사 1층에서 경북 김천시와 협업으로 '혁신도시 어울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였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김천시 14개 읍면동에서 24개의 농가가 참여하여 사과, 표고버섯, 아로니아, 한과 등 다양한 농특산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경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여러 지역 특산물 판매품목을 홍보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김천시 아동복지센터인 사랑의집, 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직거래장터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E&C



설맞이 지역농가 어울림 직거래장터 열어



# UAE 아부다비 (UAE-Abu Dhabi) 지사



UAE 아부다비 지사는 우리나라 첫 수출원전 APR1400 설계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10년전 2010년 3월 25일 설립되었으며, UAE법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 부가세(VAT), 비자 발급관리, 현지파견 직원의 급여, 보험가입 및 각종 인허가 면허 유지와 UAE 및 인근 국가의 신규사업 수주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건물(SJ Tower #106, Airport Road, Abu Dhabi, UAE)에 KNF, KPS도 입주하고 있으며, 상호정보교환과 Barakah 원전관련과 관련하여 유기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UAE는 동쪽으로 오만, 남서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으로 카타르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페르시아만(灣)에 접해있으며, 서쪽으로부터 차례로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아지만(Ajman), 움알카이와인(Umm al-Qaiwain),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푸자이라(Fujairah)의 7개 토후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9개 토후국이 연방을 결성하려 하였으나 1971년 카타르와 바레인 이 독립국가 선포를 하고 1972년 2월에 라스알카이마가 UAE일원이 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현재와 같은 연방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전체인구 약 970만명 중 순수 UAE국민은 120만명에 불과하며, 주로 인도, 필리핀 출신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2009년 원전 수주를 계기로 중동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여 한국기업 200여개, 약 12,000명의 재외국민이 UAE에 진출해 있다.

UAE 아부다비지사에서 Barakah원전 현장까지는 약 280 Km로 자동차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이곳 UAE 아부다비 지사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KSA) 지사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사장 조희철을 필두로 각종 지

사 행정업무와 전도금 Report 작성 및 부가세(VAT)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Ruba Yehia Adham (Administrator & Translator), 파견직원 및 가족의 비자 및 CICPA 신청 등 대 관업무를 수행하는 Abdul-rahman Hassan Berikae (Public Relation Officer), 지사관리와 각종 서류 대외 접수 및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 Rajib Chandra Rai (Office Clerk) 4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 조희철 지사장



2019년 8월 5번째(1대 장형식, 2대 김재학, 3대 진석일, 4대 박성주) 지사장으로 발령 직전까지 원자력본부 해외원전(EU-APR1400)사업에서 원전 해외수출사업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체코원전(APR1000) 사업의 사업책임자(PM) 업무 수행 중 이곳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중입니다. 풍부한 해외사업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지사업무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에서도 냉철하게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추진력과 지사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효과적으로 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명나는 지사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루바(Ruba Yehia Adham)



안녕하세요, 저는 루바라고 합니다. 국적은 이집트, 아부다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버지는 아부다비에 있는 TRANSCO에서 35년 근무하셨으며, 어머니는 지리와 역사 교사로 30년 근무 하셨습니다. 언니 (33) 약사/작가, 오빠 (32) 엔지니어, 여동생 (28)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며, 아부다비에 살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IGCSE) 고등학교를 졸업 후 MSA University (이집트)와 Middlesex University (영국)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 TOPIK(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UAE 세종학당 말하기 대회에서 2위를 했으며, 2019년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지원하는 세종학당 말하기 대회의 MC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KEPCO E&C는 나에게 인생을 바꾸는 많은 경험과 가르침 되고 있으며, 우리 지사는 가족같은 분위기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하루하루가 기쁘며 자랑스럽습니다!

## 압둘라함

(Abdulrahamn Hassan)



안녕하세요, Abdulrahamn Hassan(39), 국적은 이집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부다비에서 자랐으며, 아부다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국으로 가서 에인 샴스 법대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카이로의 법률 및 홍보 서비스 사무소에서 근무경험이 있으며, 2009년 한국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1년에 결혼 딸 두명 (2살, 4 살)이 있으며, 2018년 4 월에 한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KEPCO E & C 아부다비 지사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기와 같은 좋은 회사에서 개인적인 실력도 쌓을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UAE 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 라집(Rajib Chandra)



안녕하세요, 저는 Rajib Chandra Rai라고 합니다. 네팔에서 태어났으며, 새로운 것을 공부 할 때는 매우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저의 실력과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SA(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취업 기회를 얻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KS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네팔에서 2년을 지내다가 2013년 이곳 UAE에 왔습니다. 2018년 3월 한기 UAE 지사에 입사하여 함께 일하게 되어 아주 자랑스럽고, 항상 열심히 일하여 지사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부다비 지사는 지금과 같이 좋은 업무 분위기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E&C



##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 에너지 전환시대, 2020년을 한전기술이 신재생에너지 회사 진입의 원년으로!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위치도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상업발전 중인 탐라해상 풍력이나 서남해안해상풍력에 비해 규모와 설비용량에서 우위를 보여준다. 그리고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한계수준인 45m정도의 수심의 위치에 건설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 이보다 깊은 수심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6,000억 규모이며, 이 중 약 85%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화력, 원자력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전력산업은 정부 혹은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와 같은 국영전력기업이 대규모 출자를 통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였다면, 신재생에너지원은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ject: IPP)\*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IPP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므로, 무엇보다 원리금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금융사 등 대주단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수의 트랙 레코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거대 장치 산업으로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설계를 위한 조직적 기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조감도

반을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최근 국내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EPC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사의 요구조건 충족이 가능하고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브랜드 파워가 주는 신뢰도로 인해 IPP형태로 변모하는 사업 환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는 해외와 같은 100기 이상의 발전기를 설치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없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의 설비용량을 12GW로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후속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우리 회사가 사업제안을 한 시점부터 사업 착수까지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 사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풍력사업은 이해당사자의 조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풍력터빈 기종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면이 잘 드러난다.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이번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EPC에 참여하여 설계(Engineering)에 더해 조달(Procurement) 역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또한 지분투자를 통하여 향후 우리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회사로 진입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기술이 기존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살려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 \*민자발전사업(IPP)이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주도형 발전 사업. 일반 도급형 시공 사업과 달리 건설사업의 모든 핵심과정이 전개되는 고난도의 사업.

-출처: KOTRA, IPP(민자발전)프로젝트 수주 가이드-

### \*\*프로젝트 파이낸싱(PF)란?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계획의 조사와 입안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한다.

-출처: 두산백과-

에너지신사업본부 기계배관환경기술실

# 양복연 차장

보령 1,2호기 준공식에 우리 직원으로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전설을 듣고서 기계배관환경기술실 양복연 차장을 찾아갔다. 얼핏 이름이 “선재, 복연이로다.”라는 복된 인연일까. 중키의 단아한 짧은 커트 머리 탈황 환경설비 전문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Q 우리 회사 탈황설비 기술이 국내, 해외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A 그 분야에서 국내외의 다른 기술과 대조하여도 동등급 이상의 성능과 효율을 냅니다. 또 특허를 받은 기술이기에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Q 화력발전소의 경우 환경 및 배출규제가 엄격하지 않나요?

A 다른 제조설비 공장에 관해 언급은 않고 싶지만, 우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법규 또는 규제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문제가 자주 이슈화 되다 보니 기존 법적 요구사항보다 차츰 성능개선과 보안을 더 높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우리 기술력이 계속 우위를 유지하는 상황인가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개발하고 선도하며 인정받던 기술력이 시간이 지나자 각 화력발전소 마다 호기가 늘어나고 현장 데이터가 축적되는 가운데 자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운전과 경험으로 기술영역을 서서히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현장과 연계되는 분야, 새로운 기술 분야를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양차장님의 거침없는 답변을 듣다보니 프로젝트와 기술에 관하여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듯, 인간적 관심사로 질문을 바꾸었다.



Q 선배 엔지니어로서 후배 세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A 처음 입사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초심을 갖는데요. 저는 그런 초심에 플러스로 능동적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얼 할지, 스스로 일을 찾아서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을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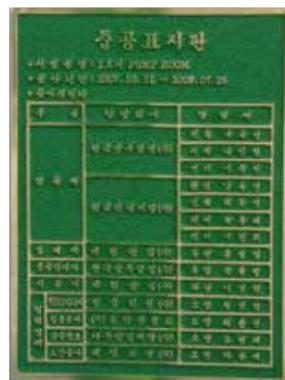
Q 환경공학자로 지구의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는데 앞으로 좋아질까요? 중국 발 미세먼지도 걱정이구요.

A 이대로라면 환경오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려면 여러 나라의 어떤 합의, 준수, 규제, 자연 보호, 기술개발 같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요.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그녀로부터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말했더니 “저도 알고 보면 여자입니다.” 천상여자인 것일까. 양차장님은 함께 입사한 동기와 결혼하였고 부군은 KINS로 직장을 옮겼다. 보기 드물게도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핏 직장, 살림,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하는 커리어 우먼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며 열심히 삶을 꾸려 나가는 씩씩한 모습에 파이팅! E&C

Q 먼저 보령1, 2호기 건물 명판에 이름이 새겨진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A 2009년 무렵 국책사업으로 탈황설비와 실증설비 프로젝트가 숨 가쁘게 진행되던 때였어요. 갑작스레 8개월 정도 현장파견 가서 탈황환경설비 설치와 시운전을 맡았습니다. 천억 정도의 대형설치 공사로 탈황 설비 설치와 시운전 진행으로 철야, 주말 작업을 밥 먹듯 했습니다. 현장 인근에 숙소를 구하는 일도 의식주 해결도 만만치 않았습다. 체력이 바닥나는 날들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 수이당 : 남도 한정식의 진미

수이당 입구의 청솔수석박물관 정원에는 높이 16m, 무게 28톤의 주상절리 돌기둥 두 개가 떡하니 서 있다. 대략 53톤의 거대석을 내몽고에서 김천으로 업어왔다는 박왕식 박물관장은 “사람들이 참 특이하거나 미쳤다고 그래요.”로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강호에 기인사가 많다는 말대로 기인에 가까웠다. 그의 이야기를 르포르타주 형태로 담으면 원고지 200매 분량도 부족할 듯, 마치 산해경과 요재지이를 읽는 느낌을 받았다.

수이(需頤)는 주역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적당히 음식을 나누어 맛있게 드시고 천수를 누리라”는 뜻이다. 주역 계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頤)’ 한자를 아래아한글에서 찾는데 십 분이나 걸렸다. 수이당 남도한정식 요리는 박관장 아내인 김인자 여사가 맡고 있다. 먼저 포항 남자와 군산 여자의 만남에서 수이당 식재료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산물 조합이란 키워드가 완성된다.

일단 맛집 탐방의 임무에 충실하자! 남도한정식 1인 2만원 코스로 예약해 놓았다. 잘 정돈되고 깔끔한 일본가정식과 비교하면 본래 상다리가 휘어져야 하는 게 한국식인데 대표선수만 선발해 본다. 박대구이, 더덕구이(별도 주문), 우렁 탕수육, 상어껍질무침, 피조개 요리가 화려한 주연들이다. 사람들은 이웃 사촌처럼 생긴 박대와 서대가 같은 물고기인줄 알지만 다르다. 박대는 군산을 중심으로 황해 쪽, 서대는 부산 방향의 남해인이 즐겨먹는 생선이다. 박대는 콜라겐 성분이 많아 껍질을 묵으로도 요리한다. 박대구이는 담백하고 고소하였다. 주방에서 전한 말로, “김수미가 텔레비전에서 박대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품귀현상이 일어나 혼났어요.” 뭔가 뜨면 재료가 동난다. 여타 더덕구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점은 향과 풍미가 깊었다. 깊은 산골에서 채취하는 걸로만 엄선하였다. 복어 대신 상어껍질을 미나리에 무쳤다. 복어보다 상어는 쫄득하고 단단한 식감이기에 저작이 필요하다. 우렁을 탕수육으로 변신시킨 아이디어는 신선해 보였다. 더불어 피조개를 꼬막 요리 스타일로 변화를 주었다.



평범한 줄 알았다가 살짝 놀라는 요리는 말린 도토리 묵 무침과 시래기 국, 고추튀김이다. 먼저 말린 도토리 묵채는 도토리 맛이 융숭 깊을 정도로 진하면서 부드럽다. 들깨가루로 조미의 식감을 보태었다. 시래기 국은 질감이 좋다는 양구 편치불에서 공수, 부추를 갈아 만든 국물에 된장을 풀고 들깨를 가미하고 우렁 씹히는 재미를 더했다. 솔직히 세세한 요리 과정은 모르겠다. 다만 시래기 국물이 품는 맛이 자꾸 밥을 데려오라고 재촉하는데 두 사이를 그냥 말아버리고 싶다는 본능을 자극한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시래기 국만 2~3 그릇 추가로 요청하고, 젊은 세대는 우렁 탕수육을 좋아한다는 후문은 식사 이후 들었다.

2층 카페 바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요리가 갈수록 강한 양념의 짠맛, 단맛, 매운맛에 중독되어 미뢰가 마비될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박관장이 “심각할 정도예요. 설탕과 고추를 막 집어넣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있죠. 수이당은 인공조미료, 강한 양념을 배제하고 재료 식감을 살리자는 콘셉트로 시작했어요.” 담백하면서 정갈한 맛이 수이당의 모토인 셈이다. 참가자의 맛 평가는 중에서 살짝 상회하는 ‘상’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머리 털 나고’ 된장 술은 처음 본다

다니 와인과의 조화가 있듯, 한정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을 수소문하다 중국에서 몇 박스 가져 온 특주라고 한다. 참고로 된장술 1병에 일만팔천냥. 그 날 진귀한 침향차와 보이차도 시음해 보았는데 상투적 표현이지만 ‘엄마 젓 떼고’ 처음 마셔 본 차 같았다. 오픈 건문지식으로 알 도리가 없지만 얼핏 들리는 말로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보이차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박관장은 드넓은 야외 정원, 수이당, 청솔수석박물관, 카페 바두, 갤러리를 문화공간으로 우리 직원이 이용해 주면 고맙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무엇보다 전경이 훌륭하다. 멀리 금오산, 후면의 형제봉, 남향으로 넓게 터진 공간, 빼어난 정원이 있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제각각 사연이 스며있으니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수이당을 방문하면 일단 ‘한국전력기술’에서 왔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란다. “혹 자수로 수놓아 그려진 진귀한 그림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을 흐리면 수장고 문이 열리는 행운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E&C

**참고** ▶오봉저수지 가는 길 모델촌 조금 지나 좌회전. 회사에서 차량 15분 정도 소요  
▶갓 지은 돌술밥을 위해 1시간 전 예약 Tel)0507-1354-0212  
▶다양한 침향차와 보이차는 청솔수석박물관 내에서 별도 계산



식당 내부 옥병풍



청솔수석박물관 가든



박왕식 박물관장, 김인자 주방장 부부

# 사내벤처 1호 탄생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신기술 사업화와 조직슬림화,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중반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면서 더욱 활성화 되었다. 그 후 한동안 벤처 열기가 잠잠했으나 최근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사내벤처 열기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 확산과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9년 12월 24일 사내벤처 협약식을 거행하여 우리 회사 제1호 사내벤처 팀(가칭 투스페이스)을 출범시켰다. 우리 회사 사내벤처 아이템은 사내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사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하여 사장이 최종 결정하였다.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추진성과에 따라 재심의 를 거쳐 사내벤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회사의 사내벤처 팀은 황경모 부장(대표), 윤훈 차장, 서혁기 과장, 정의제 사원 4명으로 출범하였다. 사업 아이টে



배관감육관리 프로그램(ToSPACE) 판매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판매, 설치, 교육, 기술지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해외판매에 주력할 예정이고, 동시에 국내 일반 산업플랜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내벤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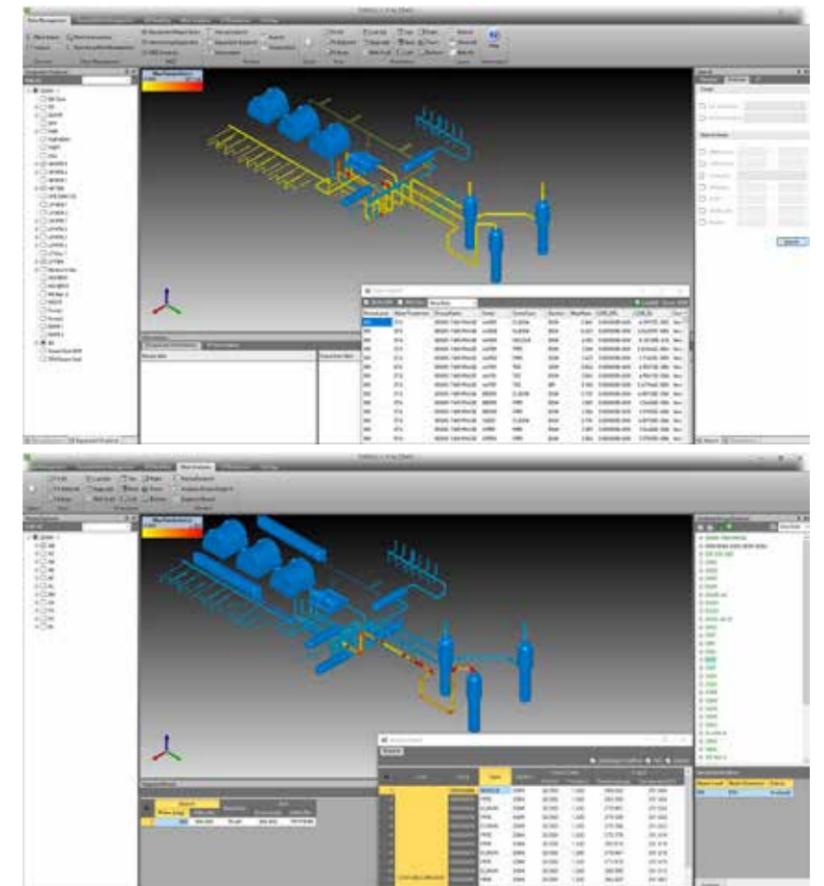
우리 회사 사내벤처 팀의 주력 상품인 ToSPACE는 원자력, 화력, 열병합 발전소의 배관 손상(두께 감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소 이외에 물이 흐르는 강제 배관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동 프로그램은 과거 5년여 기간 동안 우리 회

### 동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

- ① 배관 손상에 취약한 부위를 도출하는 기능
- ② 배관과 기기를 3D로 작성함과 동시에 DB가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기능
- ③ 열유동 해석 및 수화학 해석과 동시에 유동가속부식, 캐비테이션, 액적 충돌침식, 플래싱 등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기능
- ④ 배관두께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분석 기능
- ⑤ 검사 및 교체부위 가시화 기능
- ⑥ 검사계획서 자동수립 기능

사의 자체 기술개발과제를 통하여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GS 1등급 인증서(인증번호 : 18-0485)를 취득하고 특허증(특허번호 : 제10-1715364호)과 저작권등록증(제C-2018-036938호)도 확보한 상태이다. 회사는 상기 지재권에 대한 권리를 사내벤처 팀에게 양도하고, 연간 1억원 정도의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본 사내벤처 팀원들이 벤처 사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주변 직원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와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인식재고에 앞장서 보겠다는 취지였으며, 동시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사내벤처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내벤처에 지원하였다. 사내벤처 협약식 말미에 사장님께서서는 “사내벤처는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제2, 제3의 사내벤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ESC**



# 회사가 보이는 김천혁신도시



정재호 원) PSA&PSR사업그룹 과장 / 16년 6월 삼성 갤럭시 S7엣지

이 친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낸 매력적인 미소 한편에는 새 직장을 맞이한 긴장감이 언뜻 보이는듯 하다. 그에게 우리 회사와 인원을 맺기 위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또 풋풋한 이 청년의 10년, 20년 후 얼굴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우연히 뷰파인더에 포착된 한 컷의 스틸사진은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신입사원 티를 한껏 낸 단정히 차려입은 정장과 넥타이 그리고 한쪽 이마를 살짝 드러낸 헤어스타일이 돋보인다.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memolee7@kepco-enc.com으로 4월 6일까지 메일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5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 행복 한 잔속 노곤 1스푼, 달콤 3스푼

## 서광희 차장 & 한국화 차장

"애들이 아빠 오셨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다. 사내부부인 우리는 근 2년간 주말부부 맛보기 진행 중이다. 남편은 기계배관기술실 서광희 차장으로 고리현장에서 근무한다.

남편과는 2005년도 우리 회사 30기 입사동기로 처음 만났다. 본래 말수가 적고 담담한 성격인 남편이 의외로 연상인 내게 대시하여 우린 연인이 되었고, 부부의 연을 맺어 두 아이(하윤, 지후)의 부모가 되었다.

### 김천에서의 시작..

입사 후 약 10년 뒤 2015년 여름, 김천에 내려오게 되었다. 병원을 차로 30분 달려 구미로 가야한다, 주변 시설이 거의 없어 한 3년은 똥통 고생해야한다는 소문이 돌아 조금 불안했다. 돌이켜보면 그랬다. 퇴근 후 애들을 데리고 간 구미아동병원에서 회사 분들을 자주 만났고, 혁신도시 내 곳곳이 공사중이었다. 한데 난 왜 이곳이 마음에 들었을까? 평소 붐비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나는,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사계절이 뚜렷하니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이곳은 길거리가 호젓하여 가족과 산책하기 좋았다.

주변분들 친절하고, 선배님들 말씀하시길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다해서 교육에 큰 욕심 안 부리니 이만큼 애들 키우기 좋은 곳도 없는 듯하다.(아직 아이들이 어려 이런 생각하는 것일 수도^^;;). 혹자는 2015년에 부서에서 김천에 완벽적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나에게 만큼은 개취(개인취향) 저격 장소임에 틀림없다.



### 두 아이들..

친할머니, 외할머니 보살핌 속에 자란 하윤이와 달리 막내 지후는 회사가 김천으로 이전하던 2015년 한기도담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입소했다. 당시 최연소반인 만 1세반이었는데, 올 해 최고참 7세반에 입학하였다. 친정엄마는 일하는 나를 대신해 애들을 봐주시질 못해 가장 안타까워 하셨지만, 친구들 부모님과 비교해서 10년 정도 연배가 높으신 탓에.....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하윤이와 7세 지후는 참 아롱이다 룡이다. 식성부터 시작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웬만한 것, 다 다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것은 둘이 닮았다. 하윤이는 쾌활하면서도 침착한,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착한 딸이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장래희망이 요리사, 과학자, 유튜버, 아이돌 등으로 하고 싶은 것 많은 꼬마속녀다. 지후는 내 기분과 패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세심(?)하면서도 방귀이야기를 좋아하는 개구쟁이로 어린이집 선생님 머리스타일 변화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고 한다.

### 사내부부로서..

오래전 보았던 일본영화 '철도원' 중 주인공이 일에 치여 가족에게 소홀했던 과거를 후회하는 장면이 있다. 사내부부로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는 타인의 인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워라벨 지수가 타 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소확행이 가능하다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부서 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사내부부를 추천했었다.



### 행복 한 잔에는..

어느덧 입사 후 15년. 돌이켜보면, 남편과는 입사동기라는 인연을 거쳐 연인이 되었고, 평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 되었다. 주말이면 피곤할 텐데도 애들과 산과 들로 나가 흠 만지게 해줘서 고맙고, 아이들은 책과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 고맙다. 현실은 주중 독박육아로 노곤함 1스푼이 있지만 어깨가 아프다면 쪼르르 달려와 주무르는 아이들이 있는 지금, 이 보다 더 달콤한 행복 한 잔을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 올 봄, 남편의 고리 현장 파견이 끝나고 완전체 가족으로 변신한다. 슈퍼 에너지 뿜어낼 꽃피는 한기가족의 모습을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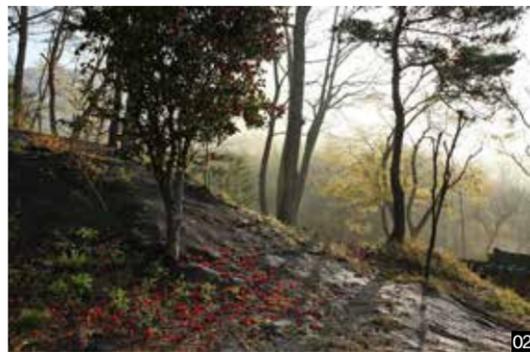
# 봄바람에 실려온 고고한 선비들의 풍류

## 가사문학지



01

01 목향과 꽃향이 어우러진 봄의 소쇄원 02 광풍각 뒷편 원림으로 봄날 아침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 03 광풍각 벽에 걸린 소쇄원 그림



02



03

언 땅이 스르르 풀리며 새순이 돋고, 꽃이 핀다. 겨우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풍광이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어서, 겨울과 봄의 경계는 늘 경이롭다. 자연에 관한 사람의 경외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봄날 들썩이는 마음을 옛 선비들 또한 추스르기 힘들어 했다. 더러는 산천을 주유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갔으니, 담양 땅에 남아있는 원림과 정자문화는 그 풍류의 끝자락 이었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논하다.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화양목 등 작게 생긴 놈만 골라 심었다. (중략)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물이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싸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이 글은 조선 예종 때의 문신이었던 채수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나재집’에 실은 <석가산폭포기>의 일부이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과 그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적고 있다. 옛 선비들은 유난히 자연을 사랑했던 것 같다. 정원을 만들고 조경을 가꾸어 자연과 가까이 하려한 것은 신분과 계급을 떠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었던 모양이다.

전라남도 담양 땅에는 유난히 많은 원림정원과 정자들이 남아있다. 조선 중종 때 선비였던 양산보의 별서정원 소쇄원을 비롯해 명옥헌,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면양정, 독수정 등이다. 이 정자와 정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취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같이 수려하고 한산한 자연 속에 자리하여 일명 정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양산보를 비롯하여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정철, 임제, 송순, 김성원, 기대승, 박순 등의 이름난 문인들이 좋은 경치를 찾아 이곳으로 흘러들어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이루었다.

### 원림정원의 으뜸, 소쇄원

울창한 대숲길을 지나 조금 들어가니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고즈넉한 정자 몇 채가 시야에 들어온다. 들어선 위치나 주변의 조화로움이 예사롭지 않다. 딱히 알맞은 위치, 풍성한 수림, 인위적이되 인공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모습이다. 담장 밑으로 흘러드는 맑은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넘어 연못 위 폭포로 떨어지고 광풍각, 제월당의 아담한 정자가 계곡 주변에 한가로이 서 있다. 단아하다는 표현이 맞을 나무들 한 폭 산수화처럼 원림을 이루었으며, 계곡 위에는 외나무다리가 있고 작은 연못은 나무 홀대로 물을 대었다.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정원. 이 곳은 사적 304호로 지정된 소쇄원이다. 소쇄(瀟灑)는 본래 ‘맑고 깨끗하며 시원함’을 의미한다. 빗소리 ‘소’ 또는 물 맑고 깊을 ‘쇄’에, 물 뿌릴 ‘쇄’ 또는 깨끗할 ‘쇄’ 라는 뜻을 지녔다. 산기슭 가장자리의 아늑하고 시원한 곳에 자리 잡았으니 그 이름의 의미가 적절하다. 지금은 물이 적어 비가 많이 내린 뒤에야 제대로 들을 수 있지만, 옛사람들은 소쇄원을 <소리의 정원>이라고 표현했다. 물소리, 새소리, 계곡과 대나무 숲으로 서걱이는 바람소리. 심지어 빗방울이 파초에 부딪는 소리까지 청각적인 요소를 많이 배려한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엿보인다.

소쇄원은 양산보(1503-1577)가 만든 조선 중기의 대표적 별서 정원이다. 16세기 무렵은 당쟁이 매우 극심했던 시기로 각종 사화들이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와중에 많은 선비들이 권력에서 밀려나 죽거나 혹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대부분 자연에 파묻혀 세월을 보냈다. 양산보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세상을 달리한 조광조의 제자였다. 스승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 학문을 배우던 그는 사화로 인해 스승이 화를 당하자 미련 없이 고향땅 담양으로 내려온다. 어렸을 때 그는 마을 뒤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따라 지금의 소쇄원이 있는 곳까지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계곡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30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40대에 완성하였다. 그는 소쇄원을 조성할 때 언덕, 골짜기, 돌, 못 등 하나하나에 자신이 직접 간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쇄원을 팔지도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소쇄원은 자연스러운 한국 정원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

**가사문학의 산실- 송강정과 식영정, 환벽당, 명옥헌**

담양의 정자와 정원들이 밀집되어있는 이곳은 가사문학지로 불린다. 정원의 중심이 소쇄원이라면, 가사문학의 중심인물은 송강 정철(1536~1593)이 되겠다.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에 자리한 송강정은 정철이 4년간 머물면서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표작 「사미인곡」 과 「속미인곡」 을 지은 장소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났던 정철은 마흔아홉에 이곳으로 내려와 정자를 짓고 지냈다. 정철이 담양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16세 때였다. 명문가의 자제로 유복하게 지냈던 정철은 10세때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끝이 났다. 아버지는 함경도를 거쳐 경상도로 유배되었고 어린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북으로 남으로 떠돌았다. 6년의 유배에서 풀린 그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담양 땅으로 내려왔다. 담양생활은 송강의 일생에서 안정적이며 따스한 시기였다. 호남사림의 학자들인 기대승, 김인후, 송순 등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임억령에게는 시를 배웠으며,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인의 자질을 길렀다. 어릴 적 정철이 살던 곳은 소쇄원 부근의 지실마을인데, 그 주변의 식영정과

04 봄물이 돌는 환벽당 05 홍문관 교리를 지낸 김윤제가 지은 환벽당 06 나무 흠을 잇대어 물길을 만들었다 07 겨가사문학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정자에서 풍류를 즐기는 내용이다 08 배롱나무가 멋드러진 명옥헌 09 뚝뚝 목이 분질러진 동백꽃이 처연하다



04



07



08

환벽당, 취가정, 명옥헌 등이 송강정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산실이 되겠다. 한편 정철의 스승이기도 했던 송순 또한 당쟁을 피해 담양에 칩거했으니 그의 정자는 면양정이다. 대사헌과 이조참판 등을 지낸 그는 이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시짓기에 열중했다. 면양정가를 비롯한 500여수가 넘는 수많은 한시와 국문시가가 이곳에서 지어졌다. 당대에 이 많은 정자와 가옥들을 오가며 문학적 교류도 활발했던 모양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당대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으며 이들을 통해 자연스레 호남 가사문학의 주류가 형성되었다. 지금도 각 정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들이 남긴 수많은 시귀들을 볼 수 있다. 어디를 가든 정자 대들보에 주르륵 걸린 현판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쉬이 찾을 수 있다. 현판들은 주로 소쇄원의 마흔여덟 가지 아름다움을 노래한 소쇄원48영처럼 각 정자나 정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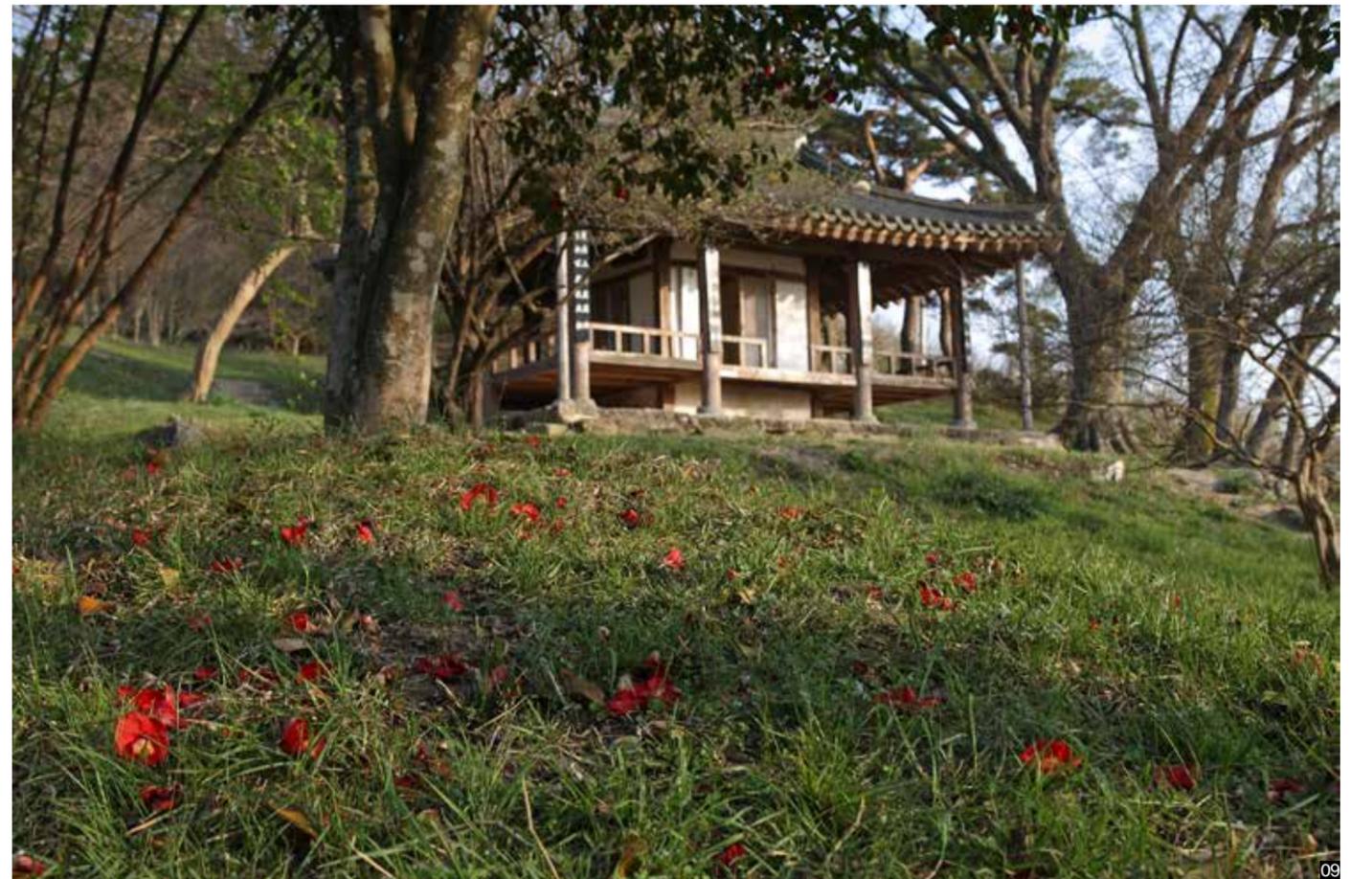
‘걸음 걸음 물결을 보며 건자니  
한 걸음에 시 한 수 생각은 깊어지는데  
흐르는 물의 근원을 알 수 없으니  
물끄러미 담장 밑 계류만 바라보네’ -<소쇄원 48영가> 중에서 김인후의 글 E&C



05



06



09



# A2F 록 밴드 첫 공연 데뷔 ROCKING

A2F는 보컬 김정수, 기타 김지훈, 이대형, 드럼 유인화, 베이스 광영신으로 구성. 기존 밴드가 사정으로 해체된 상태에서 신입사원이었던 유인화 사원이 밴드활동을 희망했고, 그이의 파워풀한 추진력으로 밴드 A2F가 탄생했다. 김지훈 사원은 밴드 B1 때부터 기타를 연주 했었다. 보컬을 맡고 있는 김정수 사원과 이대형 사원은 오디션을 통해 영입했다. [참고 : 코스모스, B1 등의 회사 내 기존 밴드가 있었다.]

이번 공연곡은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 알루미늄, 단발머리, Poker Face, 불티 다섯 곡이었다. 멤버별로 파워풀한 곡을 좋아하는 멤버도 있고, 조용하고 느낌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멤버도 있어서 곡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각자 좋아하는 곳을 돌아가면서 정하기도 했고, 회사 밴드라는 특성상 부장님들까지 좋아하는 대중적 곡으로 단발머리와 불티를 선정했다.

2020년 1월 16일(목) 12:10 국제세미나실에서 록밴드 A2F 데뷔 공연이 있었다. 사보편집팀에서 A2F의미를 전화로 물었을 때 '별관2층'이란 답을 듣고 "장소 질문한 게 아닌데요."라고 잠시 착각 하였다. 밴드 이름은 그들의 연습장이면서 아지트인 셈이기도 하다. 다음은 밴드 소개와 공연 이야기이다.



공연은 원래 10월경 야외공연으로 준비하였으나 멤버별로 일정이 맞지 않고 연습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미루다 신년공연을 기획하였다. 실내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 음향 조정이나 장비설치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송금석 부장이 밤늦은 시간까지 도움 주셔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또 공연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기타회 선배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각 멤버별로 음악적 취향이 있어 지향하는 음악을 단정하기 어렵고 모두가 즐기는 가운데 음악성도 조금씩 추구하고 있다. 첫 공연에 많은 분들이 와 주실지 몰랐고 반응도 좋았다. 공연 전에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갖은 것도 오랜만이였다. 회사생활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또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뻐다.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김천 포도축제 같은 곳에서도 공연하고 싶다.



## MINI Interview

광영신과 유인화 간략 인터뷰

- Q 먼저 첫 공연 축하드리고 자평하시면 어떻습니까?  
A 공연 음향시설은 좋았는데 연습실과 공연장 환경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공연장 리허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연을 치룬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Q A2F 록밴드의 유일한 여성으로 드럼을 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대학시절 밴드 때부터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드럼 타악기 소리에 매료되어 시작했어요. 이 파트 활동은 대략 7년 정도 했습니다.
- Q 드러머로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나요?  
A 특정한 뮤지션을 따로 마음에 두지 않고 제 취향상 좋아하는 밴드는 '브로큰 발렌타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밴드의 음악 세계에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 Q 광영신 씨가 밴드를 결성한 것으로 아는데 싱어는 어떻게 뽑았나요?  
A 엄격한 오디션 과정을 거쳐 가장 경험 많고 노래를 잘하는 베스트로 선발했습니다.
- Q 영화 '퀸'이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좋아하시나요?  
A 머큐리를 포함하여 '그냥' 퀸을 좋아합니다. 왜 좋은지 이유를 꼭 집기는 어렵네요. '그냥'이란 표현하기 어려운 감(感) 같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윤도현, 국카스텐 등의 밴드가 있지만 저는 '넬'이라는 밴드를 가장 사랑합니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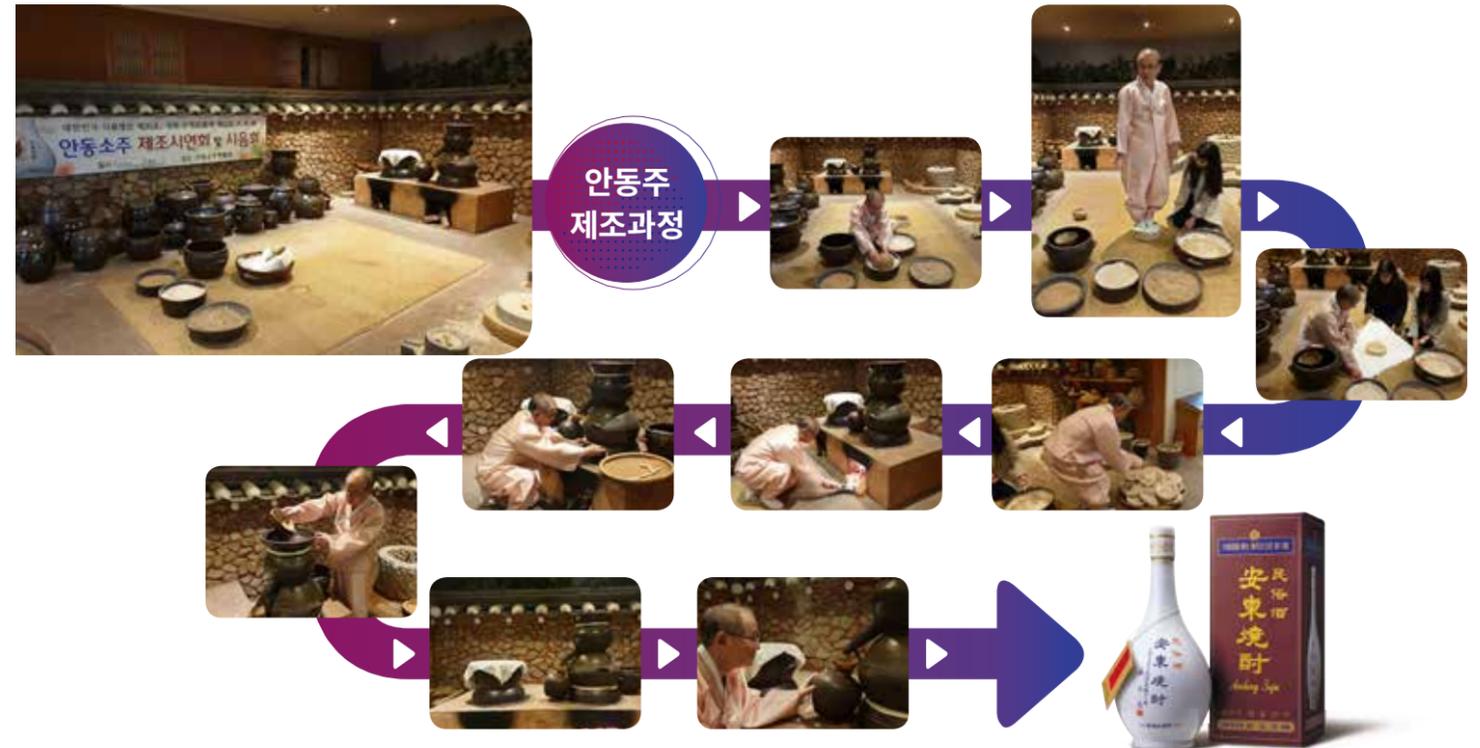
## 경상북도 안동의 전통민속주 안동소주



술익는 마을 시리즈에서 안동소주 취재에 나서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안동소주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만 해도 현재 조옥화, 명인, 로얄, 명품, 일품, 금복주, 회곡, 울소 해서 모두 여덟가지 종류가 있다.

홍보팀에서는 이 중 안동시청에서 추천해 준 조옥화 안동소주(기능보유자, 문화재 제12호, 전통식품명인 제20호)를 방문하기로 했다.

민속주 안동소주는 안동시 강남로 낙동강 남쪽에 제조판매장이 있고 일부를 안동소주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금번 취재는 조옥화 명인의 아들이자 전수자인 김연박 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았다. 민속주 안동소주 제조법은 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0호 안동소주 기능보유자, 경북 무형문화재 제12호 안동소주 기능보유자), 김연박, 배경화(며느리 전수자)로 이어 오고 있다.



**TIP.** 민속주 안동소주를 방문하면 시중가보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안동소주를 판매하고 있고 시음코너에서는 제한없이 민속주 안동소주를 시음할 수 있다. 민속주 안동소주 주소는 경북 안동시 강남로 71-1(054-858-454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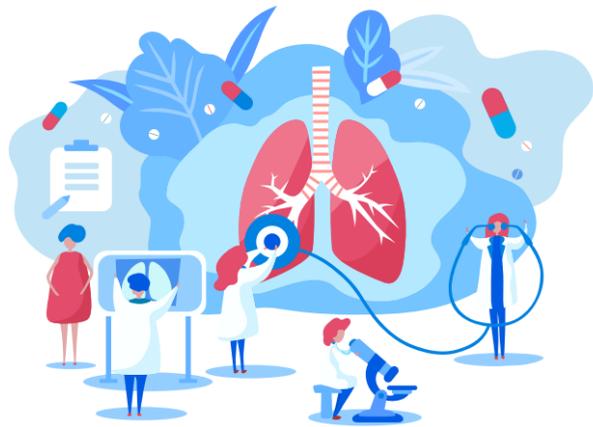
안동소주(安東燒酎)는 안동에서 전승되어온 증류식 소주로서 재료는 멥쌀과 누룩, 물이다. 안동소주는 그 유래를 신라 시대라는 설과 몽고로부터 전해졌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김관장에 따르면 안동소주의 유래는 몽고가 아니라 신라시대라고 강변한다. 증류기술은 아랍지역의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발명되었고 신라는 아랍과 중계무역을 벌여 왔는데 이때 페르시아 유리잔과 함께 증류주의 제조법이 전래되어 왔다.

예전에 소주는 안동을 비롯한 여러지역 민가에서 가양주로 전승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주세법(1909년)과 주세령(1916년)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면서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후 당시 참사를 지낸 권태연이라는 부자가 1920년 안동시 남문동에 안동주조회사(해방 후 경북소주공업 그리고 1974년에는 금복주로 인수되면서 주정을 희석해 마시는 희석식 소주로 바뀌게 된다)를 만들어 전국은 물론 일본과 만주까지 판매되면서 명성을 떨쳤단다. 광복 후에도 금지정책이 시행되자 안동소주는 정부의 눈을 피해 민간에서 제조되

며 명맥을 이어오다가 1987년 민속주 제조법이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김연박 관장은 홍보팀의 방문에 직접 민속주 안동소주 누룩 제조법에서 증류장면까지 시연하여 주었는데 전통 유지를 위해 유일하게 밀로 만든 누룩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알코올 도수 45% 안동소주만 생산한다. 시루에서 멥쌀로 고두밥을 찌고 식혀서 누룩가루와 물을 혼합해 항아리에서 20일을 발효시키고 발효가 끝난 전술을 소주고리로 증류하면 안동소주가 나온다. 처음 술은 알코올 도수가 70%에 이르다가 낮아지는데 45%의 고도주임에도 마신 뒤 향기가 입안에 은은하게 퍼져 입안을 개운하게 해 주고 마시고 난 뒤 숙취가 전혀 없다. 안동소주는 쌀 80kg 한가마로 안동소주를 70병만 만들 수 있다.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쌀이 풍족하게 나는 고장의 특별한 가문에서만 소주를 빚을 수 있었다. 안동지역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소주를 바르고 민간요법으로 배앓이 때 마시거나 독충에 물린 데 바르는 등 약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E&C**

# 천사표 간호사 박명주, 조주영



직원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실 간호사 두 분을 만났다. 감기, 두통, 요통으로 약과 파스를 얻기 위해 들리는 곳에서 만나는 분들이다. 눈이 큰 왕눈이 소녀 박명주 간호사는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고 김천토박이 출신, 3살 언니인 조주영 간호사는 서울 아산병원 경력으로 대구에서 오셨다. 두 분 모두 간호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셨다. 해부, 약리, 응급처치, 생리학 등 교과목도 많고 어떻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셨을까?



사진의 좌로부터 조주영 간호사, 박명주 간호사

직원이 어떤 질환으로 의무실을 방문하시나요? 계절 따라 봄, 겨울이면 호흡기계통, 꾸준한 감기와 두통, 운동 후 근육통, 수술 이후 상처 소독 및 가제와 붕대 교체로 찾는다고 설명하신다.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가까운 119 소방대에 연락하여 10분~20분내 신속히 치료를 받도록 비상이 걸린다. 대략 1년에 5회 정도 구급대가 출동하는데 심장질환, 외상환자 등 증상이 다양하다. 아포, 지좌동, 김천공단 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봄철에 자전거 외상으로 5회~10회 치료를 하신다고 하니 아무래도 몸이 움츠려들다 퍼지는 계절에는 안전 주의를 요한다.



## 어떤 분야 건강 상담이 가장 많나요?

단연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계통이다. 영양보충제와 건강보조식품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이 워낙 인터넷 검색과 의료정보를 열공 하시기에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라고.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VIP 손님이 없느냐고 가볍게 질문하였다. 여기서 VIP는 ‘Very Important Patient’를 의미한다. 의무실 이용규칙과 법적 이상의 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도 드물게 있는데 친절히 설명하면 납득해주시다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직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퇴직하시면서 의무실에 들러 진심어린 감사와 이별 인사를 하실 때 “엄마, 나 감동 먹었어.”의 보람이 밀려온다고. 그런 사실을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해야지 다 짐했다.

다양한 직종과 직급의 간호사가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호사의 50%이상이 직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동료와의 갈등 때문이다. 박명주 간호사가 ‘태움’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만 요즘 사회적 관심으로 개선 중이고 보건교사, 산업간호사, 전문간호사(예를 들어 호스피스 전문병원) 등으로 진출분야가 확장되기에 전망 좋은 직업이라고 대답하신다.



조주영 간호사는 세례명 데레사로 천주교 봉사활동을 계기로, 박명주 간호사는 부모님 권유로 간호사 길로 들어섰다. 두 분 모두 후회한 적 없는 선택이었다. 긴박한 응급처치 상황에 맞닥트리면 조주영 간호사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침착형으로 바뀌고 안전하게 보이는 박명주 간호사는 의외로 성격이 활발하고 밝아진다. 언니는 서양 코바늘 뜨개질, 동생은 한식 먹방 투어, 그래도 취미보다는 육아가 더 좋다고 말씀하신다. 평상시 ‘어디 아프니 약주세요’라고 말하며 의례적으로 보다가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미모가 남다르지 않다. 직원들이 ‘예쁘다’는 소리를 하는지 물었더니 당연히 자주 듣는다는 동시 화답. 그것보다 마음이 해맑아 보인다는 느낌이 훨씬 들었다. 본인들만의 건강비결. 조주영 간호사는 긍정적 마인드로 마음 편히 가지는 게 섭생보다 낫고, 박명주 간호사는 충분한 수면이 최고. 천사표 간호사의 하시고픈 마지막 말씀은 “직원 여러분 건강하세요.” **E&C**



# 무에타이는 소중한 나의 취미 활동

2018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과 후 자기개발’을 담당업무로 맡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자존심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스스로 자기개발을 시작하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유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유도관을 찾았지만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 좀 더 대중적인 운동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무에타이 체육관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시합날이 되어 경기장에 가니 해볼만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은 나보다 어린 선수. 보통 사람들에게 3분간 진행되는 1라운드는 무척 짧아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 소모는 100미터 육상경기를 3분 내내 전력질주로 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실전이라면? 초반에 제압하지 않으면 체력에서 밀린다는 생각으로 초반에 온 힘을 쏟아 붓기로 하였다.

그 결과는 1라운드 TKO승!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 경기가 1라운드에서 종료되었다. 전략이 먹혀들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겠지만 무에타이 경기에는 처음 출전하여 값진 승리! 값진 경험을 얻었다.

대부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겪는 시련기를 견디기 힘들어 한다. 체력이 부족해 힘들어 하기도 하고, 단순 반복의 기본기 연습에 지겨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문의 고통을 감내할 때 끈기와 인내가 요구된다. 그 기간만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분명히 달콤한 성취감을 느끼고 운동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된다. 운동이 삶의 활력소로 전환되는 것이다.

에너지 소모의 측면에서 무에타이는 체력소모가 심한 라켓볼과 유도보다 에너지소비량의 증가가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가진다. 체력이 밀바탕이 안되면 1라운드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헛바닥이 바깥으로 축 늘어질 정도다. 그

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고 격렬한 운동이다. 체중감량과 체력증진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무에타이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 나 스스로도 앞으로 꾸준히 나의 취미생활을 이어나가도록 결심해 본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자기개발 담당자 이상태! **E&C**



무에타이는 아직까지 비인기 종목이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토대로 점차 대중화 되어가는 듯 하였다. 그래서 당장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첫 달 한 달간은 기초체력 부족으로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10년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운동을 시작한지 두 달째에 접어드니 슬슬 체력이 늘어감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항상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처음 한 두 달이 중대 고비이다. 하지만 타격기술은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이었고 통

쾌함마저 느꼈다. 스파링을 통해 실전도 조금씩 배워 나갔다. 어디 이렇게 시원하게 싸울 수 있는 운동을 찾기가 쉬운가?

훈련을 통해 체력과 실력을 쌓아가는 중 무에타이 경기에 출전해보라는 관장님의 제안을 받았다. 아직 그럴만한 실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승부욕과 함께 도전정신이 솟구쳐 올랐다. 결국 출전을 결심하고 체중감량에 돌입하였다. 90킬로에서 4킬로를 감량하여 86킬로 이하 체중에 86kg 이하 체중에 출전하기로 하였다. 막상 결정을 하고나니 매우 떨리고 긴장되었다.





## 한국전력기술 한마음 코러스 합창단 : 노래로 만난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신은 음악이다(God is music)”라는 말이 있다. 모든 행사에 음악과 춤이 빠지지 않는다. 음악은 원초적 무의식의 본능에 속한다. 동물의 귀와 눈 중 무엇이 먼저 나와 생겼을까?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귀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시각적 눈이 발달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이 있다. 음악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 어디에 속할까? 깊은 감정과 느낌을 흔들어대기에 파토스의 영역일 것이다.

한마음 코러스 합창단은 전성환 단장, 박경식 지휘자를 모시고 총 54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여기에 우리 직원은 15인이며 나머지는 김천 인근도시의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일명 콘서트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약 2/3가 여성, 1/3이 남성 단원으로 꾸며졌다. “단원이 모두 악보를 읽을 줄 아는가?”, “기본기 없는 초보자나 음치도 오디션만 보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어리석은 질문부터 먼저 던졌다. 반드시 음악전공자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음악 쪽에 평소 관심가진 분들이 오시고 콩나물 악보는 어느 정도 읽고 피아노 연주의 리듬감에 맞출 줄만 알면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한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다. 합창 공연 중 박자와 음정이 어긋나 속칭 ‘뺨사리’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단원에게 물었다. 뺨사리 난 단원은 스스로 눈치 채고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고(볼륨 다



운) 다른 합창 소리에 묻혀 고비를 넘기고, 옆에 단원은 근처에서 누군가 뺨사리를 냈구나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자신이 맡은 파트에서 지휘자의 리드에 집중하느라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어쩌면 합창공연 뒤풀이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모르겠다. 이리다 보니 무엇보다 연습이 중요하다.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저녁 18:30~20:30 시간대, 본사별관 체육동 2F 연습실에 모여 소리를 맞추어 본다.

적절한 포지션이 능력과 맞아떨어져야 경기를 잘 이끌 수 있다. 성악 합창에서도 각자의 성량, 음역에 따라 전혀 다른 음색과 화음이 나오기도 한다. 단원이 자신이 맡고 싶은 파트와 합창단에서 요구하는 구성이 다를 수 있다. 꿈과 현실이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어떤 때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고유한 음역과 음색을 모를 때가 있다. 이런 조율은 지휘자가 한다. 잠깐 박경식 지휘자를 소개해 본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폴란드 국립 쇼팽음대 오페라/심포니 지휘과 Postgraduate 과정을 끝냈다. 현재 김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양한 음악경력에 관해서는 지면을 채울 수 없기에 생략한다.

‘남행열차’처럼 신나게 달리는 트로트 메들리, ‘요술공주 셸리’와 ‘짱가’가 나오는 만화영화 주제곡 메들리는 귀에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 덕분에 청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장르이다. 이런 발랄함은 클래식과 성악에 낯선 분들을 위한 배려이다. 성악과 관련된 추억이 있다. 1979년도 중학교 3학년 때 ‘브레



박경식 지휘자

이킹 어웨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았다. 그 영화의 시작과 끝에는 이탈리아의 가곡 ‘마파리(꿈과 같이)’라는 노래가 LP판에서 흘러나왔다. 이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깊은 충격을 받았다. 오페라 ‘마르타’ 제3막에 나오는 이 곡을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가장 좋아하였다. ‘오페라의 유령’도 한 번 보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다. 음악과의 단 한번 접촉은 화인처럼 짙혀 평생 잔향으로 남는다. 음악은 그토록 힘이 세다.

하나의 소리는 둔탁하게 낮게 깔리며 징검다리를 놓고 다른 소리는 이 소리를 디딤돌 삼아 뛰어 오르며 다채로운 변화를 들려준다. 두 소리는 그림의 후경과 전경을 이루고 서로 잘 어울려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나이 들어 음악, 시, 그림과 같은 예술과 멀어지면 감정이 메말라 삭막해져 고루해진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은 순수한 정감을 촉촉히 간직하고 있다. 노래와 사람의 어울림으로 한마음 코러스 합창단이 태어났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C





# PES Winter Camp

## 참가 후기

우리 회사는 전력·에너지 분야 미래 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Power Engineering School : PES)을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전국 주요 대학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박 5일의 합숙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화력·신재생 분야 등 엔지니어링 기초 교육, 조별과제, 발전소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과 스마트 발전소 관련 강의에서는 실제 원자력 산업의 최전선에 계신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일반적인 대학교 강의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전력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 날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원자력 전공자로서는 가장 기대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발전소를 실제로 보면서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원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수로와 중수로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주세민



Power Engineering School winter camp는 저에게 있어 정말 대였습니다. 높은 한국전력기술 본사와 기숙사에게 바라보는 김천이 멋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좁았던 저의 견문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기에 정말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 임지호



이번 교육은 저의 삶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기술은 단순하게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설계를 위해서는 '토목', '전기', '계측', '기계'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관 하나, 연료 하나를 위해서도 여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안정성'이나 '폐로 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경제성' 등 제가 평소에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을 공부하면서 품었던 의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엔지니어로서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임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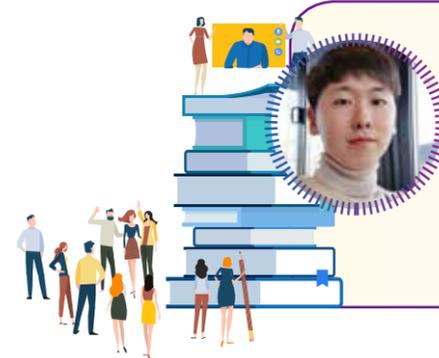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른 전공이라 원자력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PES를 통해 경주의 한수원을 직접 방문하고 원전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달리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자력 기술에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핵폐기물 관리나 국민들의 인식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타 전공인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만큼 원자력이나 에너지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천선영



공학 수업, 인문학 수업 및 월성원자력발전소 견학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PES캠프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양질의 숙식을 제공받아 복지에 대한 만족감도 매우 큼니다. 이번 캠프는 제 자신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전임교수님들, 인사팀, 대외교육팀장님, 담당 유정현 차장님 및 외부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E&C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정보전자과 강덕영



# 원우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최우수상 선정 업체

발전설비 전기분야 설계 전문회사 원우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스페이스2 건물에 본사를 둔 협력업체로서 26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천지사는 김천혁신도시 내 메타폴리스 5층에 입주해 있다.



최효범 대표



원우엔지니어링은 1993년 7월 정우 기술사 사무소로 시작하여, 1997년 1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석유화학 설비분야 전기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설립(대표 최효범)을 하였다. 1994년 1월 우리 회사의 협력사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기술개발 및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 2007년 10월 상생협력에 기여하였기에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감사패를 받았으며 또한 계약업무 이행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19년 5월 우리 회사로부터 사업수행실적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원우엔지니어링은 우리 회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발전설비 설계 기술력 향상 및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우엔지니어링이 성장하는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전기분야 설계 전문회사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우리 회사와는 1994년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기술협력과 자체 노력 결과로 현재 원자력 및 플랜트 설계분야에서 주요 용역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원자력 및 플랜트설비 전기분야 설계에는 기술 경험이 많은 인적자원으로 중요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까지 플랜트 전기설계분야에서는 FUJAIH 복합화력, 태안화력 7,8,9,10호기, 인천복합화력, 터키 TUFANBEYLI 석탄화력, 영남천연가스 발전소 태안 IGCC 실증 플랜트 및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등의 전기 분야 설계를 수행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원자력 전기설계분야에서는 신고리1,2,3,4호기 및 신월성1,2호기를 수행하였으며, 신고리5,6호기, BNPP, 신한울1,2호기 및 ITER 핵융합발전소에 대한 전기분야 설계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기에, 가동원전 KCMS DB 업데이트 및 전사 통합 케이블관리시스템에 대한 케이블 상세설계 등 괄목할만한 사업수행 실적을 현재 쌓아가고 있다. 그 동안

### [특허내역]

- [2017.08.25] 1. 전기기기의 수명을 진단하여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 및 방법
- [2017.08.31] 2. 접점 지연을 보정한 제로 크로싱 스위치 및 그 동작 방법
- [2017.07.15] 3. 기기 식별이 가능한 적응형 스마트 전력 측정 장치 및 방법
- [2017.07.15] 5. 발전소 전기설비를 위한 효과적인 케이블 포설 시스템 및 방법(2016.11.14)

수행한 발전설비 설계업무를 바탕으로 기술축적, 기술인력 양성을 토대로 후속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원우엔지니어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사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업개발과 사업 다각화에 매진하고 있다. “성실하고 정확한 기술인이 되자”라는 경영 비전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유기적 협력으로 태양광, 풍력, 자원순환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참여 할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미래성장의 초석을 닦을 계획이다.

지금 기술시장의 변화가 소규모 전문화로 전이 중이라는 전제하에 발전설비와 연관 관계를 가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하여 해당 기술력 보유업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대내외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 수료 후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 번 표창장을 받았다.

원우엔지니어링의 최효범 사장 이하 전 직원은 각자의 역할을 단순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고 자기개발을 통한 고급기술 인력으로 거듭나는 터전으로 여기고 있다.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삼아 발전설비 전기분야 설계업무에서 최고의 기술회사로 성장하려고 한다. **E&C**



교양

대구 방문판매 여성

대구여성가족재단 발간 | 대구여성가족재단 | 비매품



거대담론에 가려진 우리들 곁에 있는 하지만 주목받지 않았던 이야기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매년 편찬하는 '대구여성생애구술사' 시리즈의 신간 『대구 방문판매 여성』이 출간되었다. 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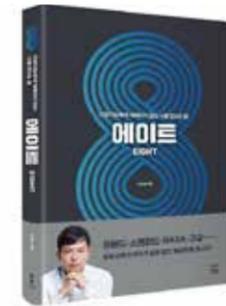
담론과 여성운동의 그림자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렇기에 우리들의 일상을 둘러싼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혀준다. 거대담론이 결여한 여성의 삶,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드러내면서 공감과 이해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 『대구 방문판매 여성』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기증을 받아 본사 열린도서관 및 휴게실에 비치 중이다.

교양

에이트 :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법

이지성 지음 | 차이정원 | 2019년 10월 21일 발간 | 값 17,000원



기술의 특이점, 그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인문학 전문가 이지성 작가가 5년만에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돌아왔다. 저자는 나사와 구글이 투자한 '싱굴러리티 대학교', 엘론 머스크가 설립한 '에드아스트라' 그리고 제2의 흑선내

항이라 불리는 일본의 교육개혁을 통해 인공지능시대는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과 제도로는 대비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데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문학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모 토울스 지음 | 2018년 6월 22일 출간 | 값 18,000



세련되고 우아한 태도, 인간적 매력으로 무장한 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백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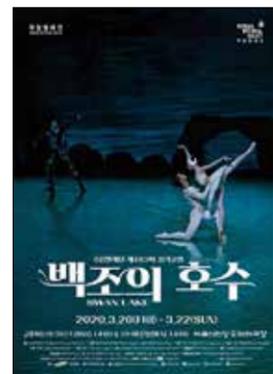
혁명 이후의 1920년대의 러시아. 백작은 숙청되어야 할 귀족 신분이었지만, 혁명에 찬사를 보낸 시를 쓴 공을 인정받아 목숨을 건진다. 대신 귀족으로서 모든 특혜를 빼

앗긴 채 메트로폴 호텔에 연금당한다. 날마다 새로운 손님과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도 백작의 관심사는 호텔의 품격과 신사의 태도유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있다. 재미있고, 영리하며,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인 주인공 공이 등장하는 소설. 결코 잊을 수 없는 여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한다.

공연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 제183회 정기공연

2020년 3월 20일 - 2020년 3월 22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백조의 호수>는 발레에 대한 문외한조차도 알고있는 유명한 걸작. 악마의 저주에 걸려 백조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오네트 공주와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지크프리트 왕자의 이야기. 악마의 탐닉과 저주 속박 그리고 왕자와 비극적 운명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음악과 춤이 전개된다. 무엇보다 다양한 결말로 유명한 <백조의 호수>. 이번 공연에서는 어떠한 결말로 관객들에게 보여줄지 기대된다. 해피엔딩일까 베드엔딩일까 아니면 열린 결말로 그 몫을 관객들에게 넘길지 주목해볼만 하다.

전시

달이 떴다고

2020년 2월 11일 ~ 2020년 3월 22일 | 대구미술관 4, 5전시실



환한 달이 떠오르고 /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 달빛에 실어 / 당신께 보냅니다

<달이 떴다고>전은 대구와 광주의 우호를 다지고, 두 도시의 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전시로 두 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자연, 혹은 심상 풍경을 담아 낸 작품들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두 도시의 상징성을 함께 공유하고 문화로 공감하는 장을 열어 보인다. 이번 전시 제목은 김용택 시인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에서 차용하여, 연정의 마음을 담은 시를 통해 대구 달구벌의 '달'과 광주 빛고을의 '빛'의 언어로 상징한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두 도시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축제

태안 세계튠립축제

2020년 4월 14일 ~ 2020년 5월 11일 | 태안 코리아 플라워파크



겨울왕국의 엘사! 정글북의 동물들! 아렌델 궁전에 홀로 남겨진 겨울왕국의 엘사! 다양한 동물들이 뛰노는 숲 속의 정글북을 표현하여 재미를 더한 축제! 태안 세계튠립축제는 세계 5대 튠립축제 중 하나로 4-5월 태안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개최된다. 전국 최대 규모, 최다 품종과 더불어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관람객들에게 무한 감동을 선사하는 태안 세계튠립축제가 동화같은 컨셉 외에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통민속체험, 마술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외에도 LED로 장식한 야경은 장관이라는 평이다.

공연

블랙코미디 연극 <ART>

2020년 3월 7일 ~ 2020년 5월 17일 | 백암아트홀 | 전석 5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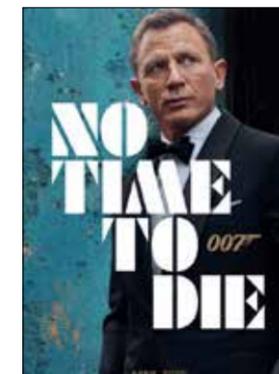


누적 관객수 20만명을 기록한 2020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15년간 끈끈한 우정을 지켜온 세 친구 마크, 세르주, 이반. 어느 날 세르주가 산 흰색 바탕에 흰색 줄이 쳐진 하얀 그림 한 점. 이 그림 한 점으로 인해 세 친구는 지난 15년간 서로에게 품어만 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상황은 점차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다. 프랑스의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연극으로 현재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35개 나라에게 공연된 인기작. 인간의 이기심, 질투, 소심한 모습들까지 거침없이 드러내는 블랙코미디이다. 하얀 그림 위에 새겨지는 웃음과 고뇌들 속으로 빠져보자.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

캐리 후쿠나가 감독 |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 | 2020년 4월 개봉예정



James Bond, License to kill, history of violence... 전작 <007 스펙터> 이후 5년 만에 찾아온 007시리즈의 최신작 <007 노 타임 투 다이>가 2020년 4월초 개봉한다. 은퇴 후 자메이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제임스 본드. 하지만 옛 동료 펠릭스가 찾아오면서 그의 평온은 깨

진다. 납치된 과학자를 구출해달라는 펠릭스... <보헤미안 랩 소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라미 말렉이 악당으로 등장하여 열연을 펼친다. 올 봄 제임스 본드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액션으로 가득 찬 첩보물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동우회 동정

2020 한기동우회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전기술동우회 신년인사회”를 2020년 1월10일(금) 11:30분에 양재에 있는 엘린포레에서 가졌다. 이날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3개 본부의 본부장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 한국 나이로 구순이 되시는 이교선, 민경식 고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시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시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렸다. 신년인사회 식순은 동우회 회장 인사와 이배수 사장의 인사와 회사에 대한 브리핑, 이종훈 고문의 새해 덕담으로 진행 하였으며, 오찬 전에 민경식 고문과 김효일 이사의 건배제의로 진행하였다.

이배수 사장은 한전기술의 작년 실적과 진행 사업개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 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회사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쳐 주었다. 이어서 이종훈 고문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덕담이 있었다. 오찬 식사 전에 건배제의를 두 분께 부탁드리자 민경식 고문께서는 올해 구순이시며, 과거 30년을 선배들이 한기동우회를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 향후 30년은 김효일 이사와 같은 60대가 이끌어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두 분께 건배 제의를 부탁했었다. 90세와 62세인 두 분이 서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였고, 참석한 모든 동우회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건배하는 모습이 매우 감명깊었다. 앞으로도 동우회가 무궁한 발전을 해 나가길 바라며, 참석한 모든 동우회원들이 서로 잔을 마주하며 건배 했다. 오찬은 뷔페식으로 깨끗하고 맛있게 준비되었으며, 114명이 참석한 “2020 신년인사회”는 예년에 비해 성황리 모임을 갖게 되어 많은 회원들이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오찬을 나누면서 상호 교제를 가졌다. 올 해도 많은 회원들이 동우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동우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경자년 올 한해도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기원하며, 다시 한번 회사의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동우회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 드린다.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1월호 사보는 실험작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대체로 새롭고 신선한 기획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읽을거리를 손수 제작하여 채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그만큼 일품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설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한계이다”라는 말과 함께 역치와 역률을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자원을 가늠하며 사보에서 최대효과를 얻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한 줄 독자의견>

- 가족탐방과 팀워크는 정감있어 보였으며 마지막에 이달의 한컷 사진은 참신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김재희 실장)
- 새롭게 단장한 사보를 읽으며 좀 더 회사에 대한 이야기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볼 수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목건축기술실 김경태 차장)
- 술익은 마을 칼럼에서 김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꼭 한번 가족과 가보고 싶습니다. (토목환경기술실 양승삼 부장)
- 사보의 변신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소중한 우리 말을 올바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환경기술실 윤광렬 부장)
- 다른 직장의 좋은 문화 소개, 스페셜리스트 각 분야 최신 동향 소개, 직장인 건강 관련 운동 등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안전해석그룹 송명준 차장)

돌발퀴즈

34개국에 참여하는 핵융합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영어 약어로 OOOO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관련 사업으로 KSTAR가 대덕단지에 있다. 2018년 OOOO국제기구 사무차장이 2018년 내방한 적이 있으며 2020년 2월 OOOO에 배관 지지대 설계, 제작 공급사업을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수주하였다.

응모방법

2020년 4월 6일까지 정답을 memolee7@kepco-enc.com로 메일주시면 3인을 추첨하여 도서문화상품권(2만원)을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돌발퀴즈 : 장유진(원)해외사업그룹 인턴사원, 김민영 (원)토목환경기술실 부장, 김연석(정보보안실 보안운영팀 부장)

이달의 한컷! : 서혜정(원)전기계측기술실 인턴사원, 김종훈(인사처 노무복지팀 인턴사원), 황재원(경영지원처 회계세무팀 인턴사원)

독자의견

사보 기사의 주제, 아이디어, 디자인, 그리고 잘못 기재된 내용과 정보등의 의견을 편집팀(memolee7@kepco-enc.com)에 알려주세요.

사보에 실을 임직원(가족)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독서, 영화, 여행, 수필 등 주제는 자유롭게 독자 원고 투고 시 가장 우선순위로 기사를 반영하겠습니다.